

# D. H. Lawrence의 애정소설에 나타난 문명비판적 주제에 대한 연구\*\*

— Lady Chatterley's Lover의 경우 —

양 영 수\*

## 목 차

- I. 서 론
- II. 본 론
- III. 결 론

## I. 서 론

D.H.Lawrence의 장편소설 *Lady Chatterley's Lover*는 전통적인 영국 상류사회의 폐쇄적인 성모랄을 비판하는 문명비판적인 주제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는, 이 소설의 주된 비판 대상인 전통사회의 성모랄이 절제와 근면, 저축 등 현대 산업사회의 경제적 미덕과 맞물려 있음이 밝혀질 때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Lawrence는 이 작품 속에서 사실상, 현대 산업사회의 비인간화 현상에 대한 치유책의 하나로서 자연 본능으로서의 부드럽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회복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인간관계 수립의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제시된 것이 남녀간의 때 묻지 않은 섹스결합이었던 것이다.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은, 일반적으로 성개방적인 애정소설로 알려져 있는 *Lady Chatterley's Lover*의 더욱 심층적인 주제가, 주지주의적이고 물질본위적인 현대 산업사회의 인간성 상실 현상에 대한 문명사적인 비판안목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히려는 데에 있다.

Lawrence의 애정소설을 문명비판적인 주제의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할 때 유용한 개념적 도구 역할을 해주는 것은 이 작가의 이른바 Sleeping Beauty Motif이다. 즉, Lawrence의 애정소설은

\* 사범대학 부교수

\*\*본 논문은 1988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료교수계획에 의한 연구비 보조로 이루어진 것임.

원칙적으로, 상층민 남성과 하층민 남성이 상층민 여성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애정 삼각관계의 맥락에서 분석될 수 있고, 이러한 애정 삼각관계에서 상층민 여성의 잠자는 생명의식을 일깨워 주는 주인공은 상층민 남성이 아니라 하층민 남성인데, 이와 같은 Lawrence 소설 특유의 작품 구성은, 이 작가에게 특유한 사회계층적 고정관념, 나아가서는 현대문명의 지배계층으로서의 상층민사회에 대한 그의 뿌리깊은 비판의식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Lawrence는 자신의 성장기와 부부생활의 체험 내용을 자신의 문학작품속에다 직접 반영시킴으로써 그의 이른바 <나 자신을 위한 예술(the art for my sake)>의 개념을 정당화하고 있는데, 그의 하층민 귀속적 이면서 상층민 지향적인 계층의식이 그의 애정소설의 주인공들에게 나타나는 계층특성을 결정짓는 것도 그의 이러한 작가의식의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II. 본 론

*Lady Chatterley's Lover*는 Lawrence 문학의 제4기에 속한다. 이 기간은 Lawrence가 1925년 9월에 미국을 떠나 유럽의 여러 지역을 전전하다가 1930년 3월2일 프랑스의 요양지 Vence 지방에서 사망할 때까지를 가리킨다. 그는 이 기간중에 여러 편의 중, 단편소설과 시 및 적지않은 에세이들을 발표했지만, 아래에서는 *Lady Chatterley's Lover*의 문명비판적인 주제의 분석에 관련되는 한에서만 이 작품들에 언급할 것이다.

*Lady Chatterley's Lover*를 통해서 보는 제4기 Lawrence문학의 특징은 제3기 문학에서 추구하던, 영웅적 남성 지도자에 의한 이상사회 건설이라는 웅대한 구도와 남성우월적인 사랑이라는 신비주의 애정관을 포기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체험 가운데에서 삶의 기쁨과 현대문명의 구제원리를 찾는 매우 비판적이고 은둔적인 작품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Lawrence가 한 때 남성 동지들을 규합하여 아메리카 대륙에서 펼쳐 보려던 이상사회(Rananim) 건설의 꿈이 허황된 공상이었음이 판명되었고, 그가 낭만적으로 미화시켜 바라보던 아메리카 인디안들의 미개사회가 유럽 문명 개조의 모델이 될 수 없음을 확인했는데다가, 그 자신의 지병인 폐결핵의 악화로 인하여 과거의 패기만만하던 영웅주의가 더 이상 지탱될 수 없었다는 것이 이 시기의 퇴행적인 문학의식 형성에 배경이 되고 있다. 추악한 모습이 현대 산업사회와 절연된, 남녀사이의 따뜻한 애정관계만이 최후의 안식과 희망을 안겨줄 것으로 보일 정도로 이 시기의 Lawrence의 사회의식은 과거의 도전적인 전향성(前向性)을 상실하고 있었던 것이다.

*Lady Chatterley's Lover*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극적인 톤으로 일관되고 있다. Lawrence가 1926년 여름 오랜 해외유랑 끝에 방문했던 영국 중부 Derbyshire 지방의 모습은 그에게 현대 산업사회의 가공할 타락상을 여지없이 폭로시켜 주었다. 아름다웠던 과거의 전원풍경은 산업개발에 의해 볼품없이 파괴되어 있었고, 노동자들의 비인도적인 파업사건은 국민복지의 꿈을 무참히 깨어버렸으며, 사람들은 고용주나 고용인이나를 막론하고 돈벌고 돈 쓰는 일에만 광분하고 있었지만,

Lawrence 자신은 불치의 병으로 죽음에 임박해 있는 상태에서 절망적인 시대상에 대해 아무런 영향도 줄 수가 없었다. *Lady Chatterley's Lover*의 비극적인 분위기는 다음과 같은 이 작품 첫 귀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비극적인 시대를 비극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주인공 Connie의 강인한 의지 가운데에 절망적인 사회에서 전개될 회망적인 애정 드라마의 싹이 준비되고 있다.

Ours is essentially a tragic age, so we refuse to take it tragically. The cataclysm has happened, we are among the ruins, we start to build up new little habitats to have new little hopes. It is rather hard work: there is now no smooth road into the future: but we go round, or scramble over the obstacles. ...This was more or less Constance Chatterley's position."

이 작품 앞 부분에서의 Connie는 아직 육체적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말하자면 *Sleeping Beauty*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즉, 그녀는 결혼생활을 몇 년간 겪고 나서야 남편 Clifford 준남작의 신체적 불구와 정신적 황폐화가 그녀의 생활에 강요하는 인간적 자기상실의 비애를 느끼기 시작하고 있으며, 그 때까지는 성행위에 대해서도 감각적인 흥분이라는 의미밖에 부여하지 않았고 ("took the sex-thrill as a sensation," p.9), 섹스의 만족에서 초연한 결혼생활을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었던 것이다 ("And Connie exulted a little in this intimacy which was beyond sex." p.13).

그러나 Connie는 육체적 욕구 충족의 길을 차단당한 결혼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자기의 삶은 생명의 근원적인 의미를 상실당하는 것임을 깨닫고는 치절한 비통과 공허감을 느끼게 된다. 남편의 신체적 불구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의 것이라고 연민의 정으로 보아 주려고 했지만, 그의 인간됨이 보여주는 비정의 정신주의 논리는 그녀의 참을 수 없는 저항감과 증오심을 불러 일으켰다. 성행위 같은 것은 부부생활에 부수되는 순간적이고 비본질적인 사건에 불과한 것으로 ("merely an accident, or an adjunct" p.13) 간주하는 남편의 몰이해성은 강요된 금욕생활에 대한 그녀의 혐오감에 불을 당겼고, 삶의 실상과 유리된 무의미한 문학활동에 아내의 참여까지 끌어들이는 그의 위선적 행위는 그녀의 공허감을 더욱 부채질 해 주었다. 이리하여 근원적인 생명력의 뿌리와 단절된 것 같은 결혼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Connie는 점차 커져오는 불안과 초조감때문에 삶의 구심점을 잃고 정신적인 해체감을 느끼게 된다.

No substance to her! Only this life with Clifford, this endless spinning of webs of yarn, these stories Sir Malcolm said there was nothing in. (pp.19-20)

1) D.H.Lawrence, *Lady Chatterley's Lover* (Harmondsworth, Middlesex: Penguin books, 1961), p.5. ※이 작품에서의 인용 페이지 표시는 이 책에 의한 것임.

Connie was aware of a growing restlessness. ...Vaguely she knew herself that she was going to pieces in some way. ...: she had lost touch with the substantial and vital world. (p.21)

Connie의 욕구불만을 채워준 남자가 소설가이자 대재산가인 그녀의 남편도 아니고 그녀가 일시적으로 정사를 나누던 부유한 극작가 Michaelis도 아니며 남편의 투박스러운 하인 Mellors라는 사실에서부터 우리는 Lawrence적인 Sleeping Beauty Motif의 계층구조가, 그의 이 마지막 장편 소설에 와서 완벽한 구현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까지, 그의 문학의식의 강력한 요소였음을 확인하게 된다.

명문 귀족인 Clifford의 신체적 성불능 상태가 그에 의해서 대표되는 영국 상류사회의 본능억압적 전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미국에서 문명을 떨치는 극작가 Michaelis의 나약하고 소심한 성격은 현대적 지식인에게서 발견되는 원초적 생명력의 상실을 암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서술에서 보듯이 Michaelis는 지적인 호기심과 교양을 갖추고 있지만 주변 환경에 너무 신경을 쓰는 자의식 과잉의 남자였기 때문에 열정적인 사랑의 도취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그가 보내는 사랑의 편지는 재치있고 다정한 내용의 것이지만 애정의 확신에서 오는 기쁨과 희망을 결하고 있다.

He was a curious and very gentle lover, very gentle with the woman, trembling uncontrollably, and yet at the same time detached, aware, aware of every sound outside. To her it meant nothing except that she gave herself to him. (p.27)

He wrote to Connie with...something witty, and touched with a queer, sexless affection. A kind of hopeless affection he seemed to feel for her, and the essential remoteness remained the same. (p.31)

이 작품에서 Connie의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Clifford는, Lawrence 자신이 평생에 걸쳐 가열찬 공박의 대상으로 삼았던 산업주의적 메카니즘의 인간성 상실을 보여주는 상층민적 남성의 가장 전형적인 예이다. 그에게 있어서 부부생활을 비롯한 인간관계의 기본원리는 전통적인 관습과 도덕적인 의무감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에 있었으며, 순간적인 충동과 개인적인 욕망은 경멸과 배척의 대상이었다. 문화인의 긍지를 존중하는 그의 냉철한 논리에 따르면, 성행위의 일시적인 쾌락은 영속적인 부부간 인륜관계에 비해 사소한 문제에 불과했으며, 비생산적이고 종잡기 어려운 개개인의 감정과 본능은 거대한 사회구조의 질서와 규범에 따라 억압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직접적인 자연본성에 충실하게 따르고 싶은 Connie는 남편의 지나친 정신주의적 생활 규범에 대해 공감할 수가 없었다. 다음 장면에서 보듯이, 그녀가 남편이 전개하는 규범적인 삶의 논리에 응수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은, 인생을 논리적인 차원에서만 설명하려는 그의 인간성 자체에 환멸을 느끼기 때문이다.

"It's what endures through one's life that matters; my own life matters to me in its long continuance and development. But do the occasional connexions matter? And the occasional sexual connexions! ...And habit, to my thinking, is more vital than any occasional excitement. The long, slow, enduring thing ...that's what we live by, not the occasional spasm of any sort."

She was silent. Logic might be unanswerable because it was so absolutely wrong. (p.45-6)

Clifford의 정신주의적 삶이 인간성의 자연을 억압하고 있음은 이 작품 곳곳에서 정면으로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그의 소위 Raicne적으로 규제된 감정("Emotions that are ordered and given shape" p.144)과 경직화된 생활감각은 Connie의 심중에 경멸의 조소를 자아내고 있다. 그녀는 육체적 욕구의 삶은 동물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남편에게 대하여, 삶의 진정한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정신보다도 더욱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육체적인 본성을 외면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I believe the life of the body is a greater reality than the life of the mind : when the body is really awakened to life." p.245). 또한, Chatterley가의 저택인 Wragby Hall에 초대받아 오는 문인들중 Tommy Dukes의 주장도 Clifford의 정신주의에 대한 Lawrence 자신의 비판을 대신하고 있다. 그는 실생활에서는 두뇌로만 살아가는 자칭 "mental lifer"이지만, 당시 문인사회를 비판하면서 "good heart"와 "lively intelligence"의 가치를 신봉할 것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Lawrence 자신의 일면을 암시해 주는 데가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진정한 인간이해는 두뇌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기능을 포괄해야 하는데도, 분석과 사고작용의 정신기능만 따로 분리시켜서 이해하는 것은 마치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따버리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며, 삶 전체의 유기적인 관계에서부터 단절된 정신생활의 추구는 마치 나무에서 따낸 사과처럼 부패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If you've got nothing in your life but the mental life, then you yourself are a plucked apple. p.39).

그러나 Clifford의 불균형적 정신주의에 대한 무엇보다도 강력한 도전은 그의 하인 Mellors의 본능적 삶에 의해서 전개되고 있다. 상층민 여자 Connie의 잠자는 성본능을 일깨워 주는 것이 현대 산업사회의 화려한 성공자들인 그녀의 남편이나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경쟁대열에서 낙오된 산지기라고 하는 이 작품의 기본 골격 속에 Lawrence의 뿌리깊은 계층의식적 선입견이 숨어 있다. 이 작품에서 Lawrence적인 현대문명 비판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는 Clifford의 지배논리적인 계층의식과 Lawrence적인 문명 구제의 방안으로 제시된 Mellors의 생명주의적 인생관을 이제부터 대비시켜 살펴보기로 한다.

Clifford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찾는 부류와 일자리를 찾는 부류로 나눌 수 있었다 ("Now he realized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opulace of pleasure and the populace of work." p.110). 그는 작품 전반에서는 아내의 도움을 받는 문학활동을 통하여 상류사회의 인기를 얻음으

로써 자신의 유달리 강한 성취욕을 충족시키다가 후반부에 가서는 간호원으로 고용한 Mrs. Bolton이 들려주는 지역사회의 경제동향 보고에 자극받아 Tevershall 광산을 개발하여 기업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물을 쾌락과 일자리라든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 발상법은 그의 다함없는 성취욕과 지배욕에서 유래했다는 데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즉, Clifford가 결혼생활 초기에 작가활동을 했던 쾌락추구의 유한계층 사회는 문학이나 예술등 정신 활동으로써 자기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는, 말하자면 명성과 인기의 세계("the popular world")인데 비하여, 그가 나중에 광산경영을 통해서 성공하려는 서민대중의 사회는 사람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말하자면 생존을 위한 노동의 세계("the working world")였다.

He realized now that the bitch-goddess of Success had two main appetites : one for flattery, adulation, stroking and tickling such as writers and artists gave her; but the other a grimmer appetite for meat and bones. And the meat and bones for the bitch-goddess were provided by the men who made money in industry. (p.111)

그런데 작가로서의 성공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던 Clifford가 기업가로서의 성공을 통하여 비로소 자기실현의 승리감을 맛볼 수 있다는 데에 그의 계층의식의 허위성이 개재하고 있다. 그가 예술 창조의 고독한 시간에 자기실현의 성취감보다는 오히려 자기상실의 무력감을 느꼈던 것은 그의 작품이 생활의 실상과는 유리된 관념의 유희에서 나왔기 때문이었다("curious, very personal stories...but there was no actual contact...as if in a vacuum" p.17). 공허한 예술 창조의 두려움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진정한 내면세계를 외면하고 싶어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위선적인 생활의 비밀을 알고 있는 아내의 면전에서보다는 무지한 Mrs. Bolton 앞에서라야 성공한 남자로서의 기쁨을 마음놓고 누릴 수 있다. 그는, 자기처럼 재산 많은 유한계층은 문학이나 예술의 기쁨을 추구하는데 반해 생계문제 때문에 노동자 생활을 해야하는 일반 대중은 직장업무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음 서술에서 보듯이 대재산가인 그 자신부터가 예술 활동 속에서는 존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고 기업경영의 외적 활동, 즉 노동의 세계 가운데에서 진정한 자기실현의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그의 계층의식의 허위성은 자신의 자아의식의 뿌리를 근원적인 생명력의 욕구에 두지 않고 타인에 대한 지배욕과 소유욕에다 두는 데에 기인했던 것이다.

He was interested in the technicalities of modern coal-mining. ...He felt a new sense of power flowing through him : power over all these men. ...He had been gradually dying, with Connie, in the isolated private life of the artist and the conscious being. ...And he felt triumphant. He had at last got out of himself. He had fulfilled his lifelong secret yearning to get out of himself. Art had not done it for him. ...With Connie, he was a little stiff. It was obvious he had a secret dread of her. Only when he was alone with Mrs. Bolton, did he really feel a lord and a master. (pp.112-3)

Clifford는 재산을 소유하고 타인을 지배하는 가운데에 자기실현의 성취감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Tevershall 광산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그들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인격체로서가 아니라 광산 시설의 일부와 같은 비인간적인 취급을 하고 있다. 그는 노동자들의 파업문제에 관하여 Connie와 논쟁을 벌이던 중, 자신의 광산 경영은 노동자들에게 생계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들의 충성과 복종을 받을 만하다고 주장한다(p.187-8). 기업이 노동자들을 먹여 살린다는 의미에서 산업구조가 개인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고 현대사회의 소유권 개념은 신성불가침하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있어서, 노동자들은 소유계층의 지배를 받아야 할 존재이다. 다음에서 보듯이 Clifford는, 일반대중은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능력과 권리가 없고, 다만 소수 능력자의 절대적 지배밑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수지배의 논리는 사실상 Lawrence적인 귀족주의 개념과 상통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Lawrence의 귀족주의적 대중지배 논리는, 개개인은 자기에게 고유한 삶의 방식에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력의 발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개성존중의 생명주의 논리였음을 생각할 때, Clifford의 주장과 같이 지배욕 충족을 위한 자기 정당화 논리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They [the masses] are animals you don't understand, and never could. ...The masses have been ruled since time began, and till time ends ruled they will have to be. It is sheer hypocrisy and farce to say they can rule themselves." (p.190)

Clifford가 주장하는 산업주의적인 노동자 지배의 논리에서, Lawrence 자신이 제3기의 지도자 소설에서 표방했던 문화적 영웅에 의한 대중지배 원리의 편린을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Lawrence가 한 때 지니고 있던 영웅주의적 계층의식은 제4기에 와서 크게 수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Clifford가 주장하는, 기업가에 의한 대중지배의 원리에 대해서 Connie가 보여주는 정면적인 반박은, Lawrence가 자신이 한 때 지녔던 영웅주의적 계층의식의 위험성을 스스로 자각하게 되었음을 암시해주는 것 같다. 즉, 대중은 산업사회 자체의 발전 논리에 따라서 기업가의 지배를 받게 마련이라고 주장하는 남편의 비정한 경영 논리에 대해 끓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그녀는 기업가들의 착취에 따른 현대사회의 비인간적 황폐화를 공박하고 있는 것이다.

"Who has given the colliers all they have that's worth having : all their political liberty, and their education, their sanitation, their books, every thing. Have colliers given it to colliers? No ! ..."

Connie listened, and flushed very red.

"I'd like to give something," she said. "But I'm not allowed. Everything is to be sold and paid for now. Wragby and Shipley sells them to the people, at a good profit. You don't give on heart-beat of real sympathy. And besides, who has taken away from the people their natural life and manhood, and given them this industrial horror?" (pp.188-9)

제3기의 Lawrence 문학에서 보여주던 영웅숭배적 대중지배 사상이 그의 말기에 와서 크게 변모했음을 무엇보다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 장편 속에서 Lawrence figure의 역할을 맡는 Mellors의 계층의식적 특징이다. 그에게는 제3기의 Lawrence figure들에게서와 같은 영웅주의적 엘리트의식도 없고, *Lady Chatterley's Lover*의 初稿인 *The First Lady Chatterley* (1926)의 Parkin에게서와 같은 계급투쟁적인 사회운동가로서의 사명감도 없다. Mellors의 계층의식은, 적어도 그 자신의 표현에 나타난 바로는, 사회의 어느 한 계층이 다른 계층보다 삶의 진실된 모습에 더욱 접근해 있다는 선택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그는 Connie에게 자신의 애정편력을 고백하는 가운데, 자기가 저속한 하층민을 싫어하는 문학소녀(the romantic sort that hated commonness, p.208)나 섹스를 경멸하는 여교사와의 교제를 포기하고 여급(waitress) 출신인 Bertha Coutts와 결혼한 것은 자신의 하층민 선호적 성격때문이라고("I was glad she was common, I wanted to be common myself." p.210)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하층민인 Bertha Coutts 역시 그녀의 저급하고 광적인 이기주의(a low kind, a raving sort of self-will, p.211)로 인하여 부부간의 의기투합을 어렵게 하여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었다는 그의 진술은 그의 육체적 욕구가 상하 양계층의 어느 쪽 여자에게서도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하겠다.

Mellors가 사회의 상하 양계층에 대해 모두 실망하고 숲속의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현대 사회의 보편적 현상인 물질만능풍조 때문이기도 하다. 그가 보기에 현대인들은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참다운 생명력의 요구를 무시한 채 돈을 벌고 쓰는 일에만 열중하는 왜곡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되었다(There was only one class nowadays : moneyboys. The only difference was how much you'd got, and how you wanted. p.108) Lawrence는 자기가 한 때 문명개조 운동의 남성동지들을 규합하려고 했던 노력이 부질없는 헛수고가 되어버렸음에 절망한 나머지, 이 작품속에서는 바깥 세상에서 분망하게 움직이는 모든 남자들이 탐욕적인 산업사회의 메카니즘에 따라 서로 짓밟고 짓밟히는 무가치한 생존경쟁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으며(The men were all outside there, glorying in the Thing, triumphing or being trodden down in the rush of mechanized greed or of greedy mechanism. p.125), 그의 이러한 절망은, 바깥 세상은 스산하며 망각만이 희망을 준다고 말하는("I'm sorry, from the outside. ...But I'm glad... when I can forget the rest." p.212) 염세적 폐쇄주의자 Mellors를 창조해내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돈 버는 일벌레(labour-insects, p.230)가 되어버리고 기계의 힘이 인간적인 삶의 매력을 말살시키는 현대사회의 거대한 흐름을 거역할 수 없는 이상 남은 것은 오직 평화로운 고독의 상태에서 독자적인 삶의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Mellors의 믿음인 것이다("I'd wipe the machines off the face of the earth again, and end the industrial epoch absolutely. But since I can't, I'd better hold my peace, an' try an' live my own life." p.230).

Mellors가 현대사회의 모든 계층이 원초적인 삶의 진실성을 상실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직접 두 계층의 상이한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계철공(踏鐵工) 집안 출신으로서의 하층민적 기질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한 때 봉직했던 공무원 사무직에



적응하지 못하여 ("because I thought I was a weed, clerking there," p.209) 先代의 대장간 직업을 택했던 사람이었다. 고등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표준영어를 구사할 수도 있고 전쟁중에는 장교 생활도 훌륭히 해냈던 사람이었지만 세련된 지식인 사회에 대한 거부감때문에 통명스러운 시골 사투리를 쓰는 외로운 산지기 생활을 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So I stopped talking *fine* and went back to talking broad," p.209). 그는 자기가 한 때 접했던 상층민 사람들이 잔인한 착취자요 비정의 물질주의자로 보였기 때문에 그들 사회를 뛰쳐 나왔지만 그가 나와서 다시 접해 본 하층민 사회는 또 그 나름대로 웅졸하고 물취미한 삶의 모습으로써 그를 실망시켰다. 그가 모든 사회관계에서 절연하여 숲속의 은둔생활을 하게 된 것은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물질소유에 대한 집착때문에 참다운 존재의 기쁨을 상실하고 있는 시대상 자체에 절망하기 때문이다.

Since he had been an officer for some years, and had mixed among the other officers and civil servants, he had lost all ambition to get on. There was a toughness, and unlivingness about the middle and upper classes. ...So he had come back to his own class. To find there, what he had forgotten during his absence of years, a pettiness and a vulgarity of manner extremely distasteful. ... The care about money was like a great cancer, eating away the individuals of all classes. He refused to care about the money. And what then? What did life offer apart from the care of money? Nothing. Yet he could live alone, in the wan satisfaction of being alone. (pp.147-8)

이상에서 본 것처럼, 산업사회의 배금주의 풍조에 절망한 나머지 모든 사회계층에서 절연된 남녀간 애정에서 마지막 남은 삶의 기쁨을 찾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Connie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Mellors의 자기 정당화 논리이다. Sanders와 Scheckner를 비롯한 수많은 논자들은 Connie에 대한 Mellors의 애정은 계층간 갈등을 초월한 화해와 평등의 사랑이며, 이 작품속의 갈등은 계층간의 것이 아니라 소유지향적 정신과 존재지향적 육체 사이의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말기의 Lawrence가 향외적인 사회문제 대결에서부터 퇴행하여 추구했던 것은 소유지향적 사회속에서 육체의 의미를 복원시키는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The issue in the final *Chatterley* version is not so much men exploiting men, but the modern mind lording it over the body.<sup>2)</sup>

Lawrence gradually stripped away the social moral from his sexual myth. ...The maladjustment between pristine human nature and the contemporary social reality seemed to him so grave, the necessary revolution so radical and therefore so unlikely, that he was driven to flee history into a mythical realm in which the passions of the body redeem the cruelties of the world.<sup>3)</sup>

2) Peter scheckner, *Class, Politics, and the Individual: A Study of the Major Works of D. H. Lawrence* (New York: Associated United Press, 1985), p.164.

3) Scott Sanders, *D. H. Lawrence: The World of the Five Major Novels* (New York: The Viking Press, 1973), pp.204-5.

그러나, 말기의 Lawrence 사상이 표방하는 계층간 화해의 태도는 위선적 자기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성해방론자 Kate Millett의 견해이다. 그녀에 의하면, Mellors는 Connie에게 계층차별의 사회적 장벽을 극복한 평등주의적 애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층상승의 이기적인 목적달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계층초월적인 평등주의자로 위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Mellors는 정치적 혹은 경제적인 정당한 방법으로는 달성하지 못한 하층민 탈피의 욕망을 귀족신분 여성과의 애정관계를 통해서 이루어 보려는 비겁자이며, Clifford가 재산과 신분에 의지하는 귀족주의자인데 비해 그는 성적 매력에 의존하는 귀족주의자라는 것이 이 비평가의 주장이다.

The lovers have not so much bridged class as transcended it into an aristocracy based presumably on sexual dynamism rather than on wealth or position. ...Mellors and Lawrence are born outsiders to the privileged white man's general sway of empire, mine ownership, and the many other prerogatives of a male elite. But this has not persuaded them to overthrow so much as to envy, imitate, and covet. ...[Their] plan is to begin by suborning the lady-class female, a feat which should give courage to subordinate other males.<sup>4)</sup>

Mellors가 귀족 신분인 Connie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 그의 탈계층적이고 평등주의적인 애정관에 기인하지 않고, Lawrence 자신의 뿌리깊은 귀족적 선민의식과 계층향상적 잠재의식을 반영해준다는 Millett의 파격적인 주장은, 비록 그것이 그녀의 여성해방론적인 선입견에 기초한 것이기는 하지만, Mellors의 몇 가지 자기표현 중에서 그 정당성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음도 사실이다. 우선, 자기의 애정 상대인 Connie가 전부인처럼 무지몽매한 험박꾼이 아니고 이해성과 양식이 있는 여성인 것에 감사한다는 Mellors의 심정 가운데에는 상층민적 특성에 대한 신뢰감을 엿볼 수 있다("Thank God I've got a woman who is with me, and tender and aware of me. Thank God she's not a bully, nor a fool." p.292). 그리고 Mellors는 자기와의 성격 불일치때문에 이혼하게 된 여자가 어떤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동정 표시도 없이 오직 그녀의 이기적인 자기고집만을 비난하고 있는데(pp.292-3), 그가 결혼 실패에 대한 자기 몫의 책임도 인정하고 있음을("I let my wife get to what she was. I spoilt her." p.213) 생각할 때 하층민 여성에 대한 그의 경멸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비천한 출신배경의 전부인에게와는 달리, Connie에게 대해서는 그들의 성급한 사랑 모험이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자상한 충고를 건네고 있는 것이다("You've got to remember your Ladyship is carrying on with a game-keeper. It's not as if I was a gentleman. Yes, you'd care." p.129).

Mellors는 하층민 출신인 전부인을 버리고 상층민 정부를 사랑한다는 점에서 적어도 결과적으로는 상층민으로의 신분향상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Lawrence 소설속에 나오는 작가의 분신들이 원칙상 상층민 여성과 맺어지고 있음은 Sleeping Beauty Motif에 대한 본 논문의 기본

4) Kate Millett, *Sexual Politics* (New York: Doubleday and Co., 1970), p.244.

적 가설에도 포함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티브에 대한 우리의 가설에 입각했을 때는, Connie의 상층민적 의식수준과 포용력을 포함하여 그녀의 본능해방적이고 열정적인 여성매력 전체가—그의 표현대로는 tenderness의 성격이—Mellors의 선택기준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입장은, Mellors가 상층민 여성과의 결합을 특권층 사회로의 정점다리로 이용했다고 말하는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결국, Mellors는 상층민 여자라고 해서 아무나 좋아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Millett의 여성해방론적 시각은, Mellors의 표면상 계층탈피적인 애정관 가운데에서 그의 뿌리 깊은 여성지배 욕구까지를 발견하고 있다. 대개의 평자들은 이 작품에서 그려진 애정모탈을, 제3기의 Lawrence 소설에서와 같은 남성우월사상에서 탈피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이 당시에 쓰여진 Lawrence 자신의 한 서한도 과거에 지녔던 일방적 지배의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And the new relationship will be some sort of tenderness, sensitive, between men and men and men and women, and not the one up and one down.")<sup>5)</sup>

그러나 Millett의 해석에 따르면, 제3기의 Lawrence 소설에서는 남성의 일방적인 자기주장에 의해 여성의 순종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만, 그의 이 마지막 장편에 있어서는 여성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하여 남성의 우월한 위치가 자명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한층 더 교묘한 남성 우월주의가 표출되어 있다고 한다. 즉, Connie가 Mellors의 나체 앞에 무릎을 꿇고 발기 상태의 그의 성기에 대하여 proud, lordly, lovely, cocksure, terrifying, overweening, towering 등의 찬사를 연발하면서, 남성이 여성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까닭을 이해하겠다고("Now I know why men are so overbearing." p.218-9) 말하고 있음은 남성의 자연본래적인 우월성을 정당화시키는 결과 된다는 것이다. 또한, 성행위 장면의 묘사에서 Mellors의 행동이 능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데 비하여, Connie의 행동이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작가 및 그 분신으로서의 주인공이 가진 여성굴종적인 애정관의 반영이라는 것이 Millett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성간의 속성의 차이는 어느 한 쪽의 우월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양성에 귀속되는 본래적 특질에 기인한 것이고, Mellors는 어디까지나 계층간 양성간의 갈등 해소를 지향한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Lady Chatterley's Lover*의 Mellors는 산업사회의 비인간화 현상에 절망하면서도 사회개혁의 적극적 행동을 포기하고 모든 사회관계와의 단절을 택하고 있는데 비하여, 이 장편의 初稿인 *The First Lady Chatterley*의 동일 역할 인물인 Parkin은 노동운동의 열렬한 투사로 등장하고 있음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애초에 Lawrence가 *The First Lady Chatterley*를 집필하게 된 것은 1926년에 있었던 영국 중부지방의 비참한 노동자 파업사건을 계기로 해서 인도적인 노사관계 개선과 산업사회 개혁을 꿈꾸어 본 결과였지만, 막상 구상되어 나온 계급투쟁적인 노동운동가의 성격은 죽음을 앞둔 이 작가의 퇴행적인 의식상태에서 심정적인 거부감을 일으킨 나머지, 두 차례의 수정을 거치게

5) Harry T. Moore, ed., *The Collected Letters of D.H.Lawrence*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2), p.1045.

된 것이다. *Lady Chatterley*의 三部作中 第二稿인 *John Thomas and Lady Jane*의 동일 역할 인물인 Parkin에게 있어서는 하층민적인 계층의식과 사회운동의 열기가 第一稿에 비하여 훨씬 감소되어 있고, 第三稿인 *Lady Chatterley's Lover*에 이르러서 사회개혁 같은 문제는 완전히 체념하고 숲속의 고독한 은거자 생활에 자족하는 Mellors의 모습 속에는 이미 압제받는 피지배층으로서의 반항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 사회계층간의 갈등과 투쟁은 끝없는 혼란의 악순환만 초래할 따름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사회의 기본 전제로서의 금전본위적이고 투쟁적인 의식구조에 기인한다는 결론이 Lawrence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던 것이다. Scheckner가 지적하고 있듯이, Mellors에게 있어서 절망의 대상은 사회의 계층구조적인 모순이 아니라 개개인의 의식구조 문제인 것이며, Sanders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Mellors에게 있어서 배척의 대상은 압제자로서의 산업사회 지배계층이 아니라 물질주의적이고 소유지향적인 산업사회의 근본이념 자체이다.

What has gone bad in the world as pictured in this novel is not a social system per se but man's mental consciousness.<sup>6)</sup>

He (Mellors) is no longer the threatening representative of an oppressed class. ...Where Parkin is for doing away with the bosses, Mellors is for doing with industry<sup>7)</sup>

With each revision Lawrence recoiled further towards the "populace of pleasure". The underlying class critique was watered down. The workingclass Parkin became the gentleman Mellors. The demand for a social revolution was exchanged for the hope of a private peace.<sup>8)</sup>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 산업사회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Mellors의 반응은 극히 개인적이고 현실도피적이며 심지어는 비겁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Lawrence는 그렇게 무책임한 현실도피적인 문명관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는, 현대의 거대한 인구조직과 복잡한 사회구조가 파멸되든 안되든 오불관언이고 혼자만의 안일한 고립 속에서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겠다는 식의 이기주의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며, 그가 제시한 삶의 방식은 오히려 현대문명 구제의 길을 가장 근원적인 차원에서 모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작품의 맨끝에서 Mellors가 Connie에게 보내는 편지에서처럼, Lawrence의 기본 입장은, 근원적인 의미에서의 진실된 삶은 돈을 벌고 쓰고 하는 경제행위 이전의 원초적인 인간관계와 함께 회복되는 것이며, 직접적인 인간관계의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회복하지 못하는 산업사회 문제의 논란은 생존경쟁의 압박이라는 끝없는 악순환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입각해 있는 것이다.

6) Peter Scheckner, p.165.

7) *Ibid.*, p.180.

8) Scott Sanders, pp.188-9.

Their whole life depends on spending money, and now they've got none to spend. That's our civilization and our education : bring up the masses to depend entirely on spending, and the money gives out. If only they were educated to live instead of earn and spend, they could manage very happily on twenty-five shillings. (pp.314-5)

Raymond Williams는, Lawrence가 토로하고 있는 현대문명 비판의 깊은 의미는, 산업주의적 인 소득중대의 경쟁 쪽으로 인간의 모든 정신력이 소모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그의 한 마디 말 (The industrial problem arises from the base forcing of all human energy into a competition of mere acquisition.)<sup>9)</sup>속에 요약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본래적인 삶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결국 삶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방법 여하에 달려 있다는 Lawrence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다.<sup>10)</sup> 다음 인용에서 보듯이, 모든 사회관계와 절연된 채 칩거생활을 택한 Mellors의 폐쇄주의적 믿음도, 사회문제의 단초는 결국 삶에 대한 개개인의 해석 문제에 귀결되며 삶의 인식방법의 혁신은 궁극적으로는 육체적 접촉의 순수성을 찾는 가장 원초적인 단계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불교적인 가르침이 육체적 접촉의 욕구를 초월하라고 하는 것은 Lawrence의 믿음과 다르지만, 인간문제 구명의 출발점을 사물인식의 근원적인 태도에서 시작하려 한다는 점에서는 서로의 입장이 일치하고 있듯이, 남녀간 접촉의 tenderness와 warm-heartedness가 문명 구제의 차원으로 연결된다는 그의 주장을 그렇게 허황된 것으로 보아 넘길 일은 아닐 것이다.

"I don't believe in the world, not in money, nor in advancement, nor in the future of our civilization. If there's got to be a future for humanity, there'll have to be a very big change from what now is." ...

"Shall I tell you?" she said, looking into his face. "...It's the courage of your own tenderness, that's what it is." ...

"Ay!" he said. "You're right. It's that really. ...It's a question of awareness, as Buddha said. But even he fought shy of the bodily awareness, and that natural physical tenderness, which is the best. ...We're only half-conscious, and half alive. We've got to come alive and aware." (p.290)

*Lady Chatterley*의 3부작을 서로 비교할 때 우리의 주의를 끄는 한 가지 사항은 초고에서 제3고로 갈수록 Lawrence figure의 지성적 특성은 증대되는데 반해, 그의 행동 방향은 사회관계와의 연계를 점점 축소시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가장 열렬한 사회운동가로 등장하고 있는 *The First*

9) D.H.Lawrence, "Nottingham and the Mining Country," *Phoenix: The Posthumous Papers of D. H. Lawrence* (New York: The Viking Press, 1936), p.138.

10) Raymond Williams, *Culture and Society* (Harmondsworth, Middlesex: Penguin Books, 1982), p.200.

*Lady Chatterley*의 Parkin은 지성적 성향이 가장 빈약하고 본능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는 주인공인데 비하여, 사회개혁의 열의에 있어서 가장 체념적이고 퇴행적인 *Lady Chatterley's Lover*의 Mellors는 가장 높은 교육수준과 이지적 분별력을 갖추고 있다. 지성적 특징은 사실상 상층민적 성격의 주요 요소로서, 하층민 Mellors와 상층민 Connie의 접근과 결합을 성사시키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Sleeping Beauty Motif*의 완성에 결정적인 힘이 되고 있다. Sanders가 지적하고 있듯이(p.178), *Lady Chatterley's Lover*의 Parkin은 Connie와의 접근 과정에서 현대문명의 위기 문제나 육체적 욕구의 의미등에 대해서 지성인인 Mellors처럼 조리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그녀 개인에 대해서도 하층민으로서의 반발심을 극복하기 어려웠으며, 그녀 또한 Parkin의 건장한 육체와 소박한 인간미에 끌리면서도 육체적 만족 이상으로 깊이 발전하기 어려운 두 사람의 관계로 인해 자기모멸감을 느끼고 있다. 초고에서는 계층을 달리하는 두 남녀의 계층간 갈등 의식이 시간이 갈 수록 더욱 고조되고 있고, Parkin이 Connie에게 노동운동에 조력할 것을 종용할 때 그러한 갈등은 최고조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층간의 갈등은 제2고와 제3고로 갈 수록 Lawrence figure의 점증하는 이지적 특성과 유화적 계층관에 의해서 상호이해와 친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초고중의 Parkin이 작품 끝 부분에서 상전에게 해고를 당했을 때 제3고중의 Mellors처럼 벽지 시골로 은신하지 않고 공장 노동자로 취직하여 계급투쟁적인 노동운동에 가담함으로써 상층민 여자와의 결합에 암영을 던지는데 비하여, 제2고중의 Parkin은 해고를 당했을 때 情婦의 재정 후원과 설득을 받아들여 사회운동에서 손을 끊기로 함으로써 화해적인 계층간 결합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When Lawrence moves Parkin out of the magic wood into industrial Sheffield, the mythic union between the potent common man and the sleeping lady seems less plausible. ...In *John Thomas* Parkin has become less of the opaque, mysterious gypsy, but has not yet become the garrulous Lawrentian spokesman of *Lady Chatterley's Lover*<sup>11)</sup>.

### Ⅲ. 결 론

*Lady Chatterley's Lover*는 Lawrence적인 *Sleeping Beauty Motif*를 가장 충실하게 구현시킨 작품에 속한다. 우리가 앞에서 설정한 이 모티브의 조건들은 이 장편 속에서 Clifford, Connie, Mellors의 성격 가운데에 완전무결하게 나타나 있으며, 이들 세 주인공들 사이의 애정관계에 있어서도 이 모티브의 완전한 구현이 이루어지고 있다. Clifford는 소유지향적이고 정신주의적인 전형적인 상층민으로서 여자의 본능적 열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Connie는 상층민 신분이면서도 문명 비판적인 의식수준이 높고 본능해방적인 열정가이기 때문에 탈계층적인 애정관계에 과감할 수가

11) Scott Sanders, pp.178-9.

있다. Lawrence figure인 Mellors는 하층민 귀속적인 본능적 생명력과 상층민적인 높은 의식수준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Lady Chatterley's Lover*에 있어서는 Lawrence figure의 계층의식적 갈등이 극복의 전기를 맞고 있다는 데에 특징이 있었다. 그가 자기가 겪어 본 바의 현대사회의 어느 계층도 산업주의적인 비인간화 경향에서 벗어난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직 탈계층과 탈사회의 은둔 속에서만 마지막 남은 삶의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

성본능 해방의 대담한 애정관을 담고 있는 이 작품이 독자들의 더욱 큰 감동을 자아내게 된 것은 Mellors와 Connie의 계층을 초월한 사랑이 평등주의적 인간애의 이상을 실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Mellors가 Connie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제3기의 Lawrence 소설에서와 같은 남성우월주의적인 것도 아니고, 제2기 소설의 주인공들처럼 독립적이고 투쟁적인 자아의지들 사이의 끝없는 갈등관계도 아니고, 이 주인공의 전신인 Parkin에게서처럼 지배계층의 횡포에 대한 피지배층의 울분을 담고 있는 사랑도 아니고, Wragby Hall에 출입하는 다른 남자들처럼 귀부인에 대한 사교적인 관습에서 ("Men were very kind to the *person* she was, but rather cruel to the female," p.126) 우러나온 것도 아니었다. 계층을 달리하는 이들 두 남녀는 인간사회의 여러가지 제약을 극복하여 원초적 인간관계의 값진 회복을 이루어 냈으며, 그들은 또한 Lawrence의 이른바, 우주적 생명력에 동참하는 신비적 체험으로서의 脫人性的인 사랑의 감동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Summary

The Criticism on the Modern Society  
in D. H Lawrence's *Lady Chatterley's Lover*

Yang Young-soo

This paper is to find out in D.H. Lawrence's *Lady Chatterley's Lover* the theme of the criticism on the modern society. A useful tool of conception in analysing Lawrence's love stories is Sleeping Beauty Motif, in which a lower-class male awakens the sexual vitality of an upper-class female who has remained dissatisfied with the lack of life force of an upperclass male. This motif can be identified in *Lady Chatterley's Lover* with some modification. In this last love story written by D.H. Lawrence, the upper-class female, Connie, can be in love with the lower-class male by the virtue of the tenderness of her warm heart, irrespective of the class attributes. The male character, Mellors, springs from the lower-class society, but he has passed through, and is disappointed with, the dehumanizing aspects of both classes. The author's message in this novel is that the basic problem of the modern industrial society arises from the base forcing of all human energy into a blind competition of mere material acquisition, and so the radical solution of the dehumanizing problems should be searched for in the restoration of the primeval tenderness of human relation, whose typical case could be materialized in the warm-hearted sexual relation. One element of the Sleeping Beauty Motif in Lawrence's other love stories during his last period, i.e. the propensity towards intense conflict between classes, seems faded in this novel, and the passionate love takes place in disregard to the worldly noise.